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

■ 김정훈 / 홍익대학교 교수(기초전력연구원 중앙교육센터장)

올해 전력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이 7월 2일부터 6일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IT기반 분산전원 기술(기반과정 1)'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적 인프라 구축에 들어갔다. 이는 5년간 2,700여억원이 투입되는 전기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전력IT 사업'에 전문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력IT 사업이 향후 국가의 성장동력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을 성숙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술 개발 못지않게 전기인의 이해와 관심이 수반되어야 하고, 국가의 대계라는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미래의 전력IT를 이끌고 갈 인력 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개최된 하계학술대회에서 발 디딜 틈 없이 자리를 메운 전력IT 인력양성사업 발표장에서는 전력IT 사업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인력양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전력IT로 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세계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IT로 각인시킨 결과, 국내에서는 학생들이 전자공학에 몰리는 솔림 현상 때문에 전기공학이 몸살을 겪었지만, 지난 수년간 전기산업에 IT가 접목되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학생들에게 전기공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이는 전기공학에 관련된 수강 신청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IMF 이후, 벤처기업의 붐을 타고 전자엔지니어의 길로 향하던 학생들이 이제 전기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열의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가고 있다.

전기산업이 전력 분야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 통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전자산업과의 융합전스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험하면서 전기산업의 비전을 전기인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과 전기산업이 세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은 운영위원회 및 기획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인력양성 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써왔으며 이는 하반기부터 산학연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의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으며, 현재는 중앙교육센터에서는 산업체 인력을 대상으로 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이를 전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수도권 2개 클러스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각 1개 클러스

터 등 5개 클러스터를 설치했고, 각 클러스터마다 학부 및 대학원의 전력IT트랙 운영 및 1개 이상의 산업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우수학생 유치 및 산업체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체계적인 교과목 설계 및 전력IT트랙 이수 증명, 채용시 가산점 부여 추진, 산업체 인력의 교육 평가 등을 고려해 승진 기회를 가능케 하는 교육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인력양성은 전력IT 사업을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초석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의 2007년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는 전력IT사업 관련 65개 업체 및 전력IT 관심 기업 대상의 가족회원사 제도 구축, 기술 자문조사를 통한 9개 산업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7년 하반기 전력IT 인력양성사업 추진 계획]

기간(2007년)	일 정	내 용
6월 22일	수도권 분소(Cluster) 워크샵 개최	분소 책임자 및 교육프로그램 담당 PD, 기획실무위원회를 대상으로 성균관 대학교에서 워크샵 개최
7월 2일	중앙교육센터 첫 번째 산업체 교육프로그램 실시	9개 교육프로그램 중 첫 번째 교육프로그램인 "전력IT를 위한 분산전원기술"을 수도권 분소(Cluster)인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시행
6월~7월경	분소(Cluster)현장 실태조사	각 권역별 분소(Cluster)를 대상으로 전력IT 인력양성사업 참여 전임 연구원 및 직원들의 현장실태조사 실시
6월~7월경	산·학·연 가족회원사 제도 구축	전력IT사업 관련 66개 업체 및 전력IT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회원사 제도를 구축
7월~9월경	1차년도 산업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시행	기술 자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9개 산업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시행
9월경	2차년도 교육 프로그램 기술 자문 조사 및 개발	기술 자문조사를 통해서 2차년도 최우선 교육프로그램 선정 및 개발
10월경	2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1차년도 사업 수행 결과를 토대로 2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전력IT 사업은 이미 관련 업체와의 협력 체계가 진행되고 있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 가족 회원사라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에 대해 보다 세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찾고자 기술 자문을 통한 의견이 반영된다.

4차년도로 진행되는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은 15개 강좌를 개설하여 1차년도 210명, 2차년도 480명, 3차년도 540명, 4차년도 540명 등의 인력을 배출하게 된다. 그리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력IT 강좌를 개설해 3차년도 부터 연120명의 인력을 양성한 후, 관련 전력IT 산업체에 우수인력으로 공급된다. 권역별 분소(Cluster) 5개소(15개 대학)에서는 대학원생 240명, 현장인력 150명, 기타(학부생) 450명으로 840명의 인력을 매년 양성하여 총 3,360명의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은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교육의 질적인 향상 측면에서는 전력IT 전문 교육기관 설립추진, 전력IT 인력양성사업 교수요원 확보, 전력IT 분야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이 진행된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재정 및 예산과 관련해서는 산업체 전력IT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유료화한다. 이를 위해 전력IT분야 산업체에 맞는 주문형 교육을 실시하고, Hub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유료화해 노동부(교육비 환급대상)지원 교육으로 시행한다. 교육의 인증과 관련해서는 인증체제를 구축하여 공신력 있는 전력IT 인력양성기관으로 인정받아 전력IT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취업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재 기술인력의 개인적인 신분 상승의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전력IT 홍보사업을 프로젝트화하고, 대학에서 전력IT분야를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 홍보관 활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교육을 통한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동남아 저개발국의 전력IT분야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은 이와 같이 국내 전기산업을 중흥시키는 계기가 될 전력IT 사업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올해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의 서막을 함께 올린 인력양성사업 참여자들은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전력IT 인력양성사업 참여자들의 건투를 바라며, 전력IT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는 바이다.